

#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 중요”

##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광주고법서 강연 사법개혁·윤석열 구속기간 논란 등 작심 발언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광주 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고법·지법 새해맞이 명사 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사법 독립과 국민 신뢰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관과 법원 직원, 지역 변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존재 조건으로 ‘독립’과 ‘신뢰’를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사법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지만, 독립만으로 법원이 존립할 수는 없다”며 “사법부는 독립과 국민 신뢰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정치인은 정치의 역할을, 법률가는 법률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률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지만,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본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수, 이른바 ‘휴먼 에러’를 바로잡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고법·지법 새해맞이 명사 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강한 어조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개인의 실수, 이른바 ‘휴먼 에러’를 바로잡

으면 될 문제를 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느냐”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관행을 바뀌어 한다면, 힘없는 민초의 사건에서 먼저 바뀌어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뀌느냐”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짚는 발언이었다.

문 전 대행은 2024년 10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결정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법률가라면 해야 할 일이었다”며 “만약 그때 효력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대통령 탄핵 심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절차가 멈추면 무법천지가 되고, 결국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간다”고 경고했다.

사법부 비판의 방식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행은 “법관 개인에 대한 대인 검증이나 자택 앞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판결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며 “법관이라면 그런 비판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후배 법관과 법조인들을 향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저 같은 야인이 밖에서 외치겠다”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일은 현직 법관과 법조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가는 길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이 되어 한다. 질문하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퇴임 이후 강연과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법원, 도급순위 99위 한국건설 회생안 인가

### 채권액 총 2129억…채권자 하청업체 등 2816명

법원이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공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 유석동 재판장은 최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 공고에 적시된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129억원에 달한다. 채권자는 국세청, 지자체들, 은행,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모두 2816명이다.

한국건설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천억 대 대여금을 가지고 있어 부채 상환도 가

능할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공동관리인들은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추후 분할로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했다. 또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인도 또는 현금 변제 등을 약속했다.

한편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2883억원)의 중견 건설사였다. 2023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로 주택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했고, 이듬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일자리사업 발대식

## 동구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

동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발대식 26일 오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발대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일자리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형, 역량활용형, 공동체 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총 4개 분야에서 4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동구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 등 8개 수행기관에서 실시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금호고속, 직원 급여 지연손해금 소송 패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연차수당을 수개월 늦게 지급한 금호고속이 소속 직원들이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익스프레스 소속 직원 A씨 등 10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은 월급·연차수당 지급 지연 손해금으로 총 3414만여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 등 직원들은 사측이 2021년 8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월급과 2021~

2022년의 연차 수당을 지급 기일보다 뒤늦게 줬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근로기준법상 ‘천재·사변’에 해당해 연 20% 지연이자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천재·사변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법상 지연손해금 적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급 지체가 반복된 상황에서 사후적 위로금 지급만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4117명 속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일망타진’

### 광주경찰청, 총책 등 17명 검거…피해액만 26억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수천명을 상대로 수십억대에 달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불잡혔다.

광주경찰청은 26일 누리망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사기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총

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짜 물품 사진을 게시하고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사기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관련자들을 순차적

으로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백화점 상품권과 야구·공연 티켓,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종고자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거래 계정이나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없다는 점을 믿고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전 추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는 한편,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 오늘의 날씨

예보	07:35	달빛	12:03
해질	17:55	달빛	01:45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2~3
	목포		0~3
	여수		-1~5
	순천		-2~5
	구례		-3~4
광주	매남		-1~4
	함도		0~5
전남	흑산도		3~4
	고흥		-2~6
	진도		1~4

목포	미물(고)	08:17 / 20:18
	샘물(저)	00:47 / 13:27
여수	미물(고)	03:03 / 14:58
	샘물(저)	09:00 / 21:38

### 손님인 척 금목걸이 ‘슬쩍’

만년필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여.

광주 동부경찰은 26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 금은방 두 곳에서 각각 300만원과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그는 손님인 척 가장해 여러 물건을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이 한 눈을 판 사이 호주머니에 금품을 넣는 방식으로 범행. 대담하게 한 상점에서 범행한 뒤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쳐.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를 붙잡아.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두쫘쿠’가 뭐길래…헌혈의집에 번진 ‘선한 대기열’

### 헌혈의집 총장로센터, 10~20대 헌혈자로 문전성시

### 문 연지 30분만에 30명 대기…“추가 이벤트 검토중”

“헌혈도 하고, 구하기 힘든 두바이 존 득쿠키도 받으니 더 기뻐요.”

지난 23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헌혈의집 총장로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실은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다. 평소보다 유난히 활기가 넘쳤다.

SNS를 타고 퍼진 ‘두쫘쿠 증정’ 소식 때문이다. 10~20대 젊은 헌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변호표를 뽑았고, 직원들은 설 새 없이 쿠키를 포장하고 기념품을 정리했다.

총장로센터는 한때 전국 헌혈자수 1위를 기록했던 곳이다. 2015년 한 해에만 3

만6000명 넘는 시민이 찾았다.

하지만 상권 이전과 유동인구 감소로 지난해 헌혈자는 2만1000명대로 줄었다.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대안적 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이날 전혈·혈소판 헌혈자 선착순 70명에게 두바이 존 득쿠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센터 입구에는 ‘금요일 하루 두쫘쿠 증정 이벤트’, ‘벌티타마민 받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를 힐끗 보던 시민 몇 명은 발길을 돌려 센터 안으로 들어섰다. 전자문전실 앞에는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헌혈자들이 줄을 섰고, 직원과 봉

사자들은 처음 방문한 시민들에게 절차를 차분히 안내했다.

체혈실에서는 등반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헌혈자들이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팔을 내밀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긴장된 표정도 잠시였다. 문을 연 지 30여 분 만에 대기 인원은 3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헌혈을 마친 뒤 손에 쥔 작은 상자는 생각보다 큰 미소를 만들었다. 쿠키를 받은 헌혈자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사진을 남기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이날 첫 헌혈자였던 윤여신씨(20·서구 금호동)는 “친구들과 함께 오려다 혼자 왔는데, 헌혈의집이 이렇게 북적이는 건 처음 봤다”며 “좋은 일도 하고 누나에게 줄 선물도 생겨 기분이 좋다”고 말

했다.

안소정·최재원양(19)은 이를 전부 헌혈을 준비했다. “선착순이라 해서 총분히 자고 몰도 많이 마셨다”며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헌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혈액원은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총장로센터 관계자는 “평소 오전 헌혈자는 10명 이내였는데, 오늘은 2~3배로 늘었다”며 “지역 카페나 기관과 협업해 시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활기와 달리 혈액 사정은 여전히 빠듯하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은 3.5일치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혈·혈소판 헌혈에 참여한 사람들에 ‘두바이 존득쿠키(두쫘쿠)’를 선착순 증정했다.

불과하다. 정부 기준으로 ‘관심’ 단계다. A형과 AB형은 특히 부족하다. 작은 쿠키 하나가 만든 줄은 길지 않다. 그러나 그 줄 끝에서 누군가는 오늘

도 생명을 기다린다. 이날 총장로센터의 오전 풍경은, 선의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보여주어 있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